캡스톤의 이념과 더 어울리는 건 여행같아 보인다. 상업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하지만 구글 타임라인에 비해서 어떻게 차별성을 둘 것인가??

패미컴 프로젝트의 MIDI변환 구현을 못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독창성이 있더라도 실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있음.

옛날 개발툴? MIDI에서 fti 패미컴 트래커용 파일로 변환하는 건 없었다. 통합된 툴은 없다. 구현하는데 드는 노력은 있겠지만 MIDI 채널 시퀀스별 개발 까다로울 것 같다. 어디 갔었던 것 같은데 다이어리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 구현하기 따라 다를 것이다. 추가적으로 일정에 정보 기록해서 일정 찾기.

평점을 매기세요 빠밤

자바스크립트? 패미컴 플펙이 일 분담하기엔 좋다. 이미 있는 스프라이트 편집 툴과 병행해서 우리의 플젝을 실행할 수 있다. 어셈블러 리스팅 파일 소스, 에러 정보 출력 파일, 종합해서 보여주는 에러 처리 주소 지정 잘못 했다던가… 파일 입출력 왔따갔따 해야한다.

인클루드 디렉티브, 인클루드 바이너리

레이블 처리

메모리 값으로 읽어야 함. 바이트 배열로 쭉 구성되어 있음.

GUI 프로그래밍

여행 : 이쁘다. 하기 좋다. 성능이나 기술적으로 할 말이 많을 것이다. 기존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기능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 혼자만의 무엇인가 vs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유사하지만 다른 프로그램이다. 서버나 이런 분야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 구글 서비스와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독창성 : 핸드폰의 배터리가 다 되면 끝이지만 나 혼자만 가는 여행이 아니니까 모두의 사진을 함께 할 수 있다. 남들과의 관계를 소셜 네트워크적인 면모가 더 있다. 인싸프로그램이다. 아싸서비스 vs 인싸프로그램

패미컴 : 패미컴용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패미컴의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결과이다. 롬파일이 나올 것이다. 얻을 수 있는 것은 패미컴이라는 조그마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여러가지 배경지식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알 수 있고 프로젝트 자체가 특정한 프로그램 언어를 요구하다기 보다는 얼마나 잘 구현하기 때문이니 프로그램 언어에 종속되지는 않는다. 장점인 것 같다. 독창성 : MIDI2Nes에 달려있다. 패미컴 어셈블러는 2~30년 전부터 배포가 되었었다. 어셈블러 자체는 시ㅡㅅ템 프로그래밍 능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MIDI2Nes는 실용성과 차별성의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잘 개발되어 있지는 않다. 이거를 실제로 게임 개발 하는 사람한테는 필요 없겠지만 칩튠 한테는 필요하다. 이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만 이 프로그램의 실용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이 프로그램은 분산적이기는 하지만 이 덕분에 종속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 어셈블러가 없었다면 죽어라 결과를 확인하고 디버깅했겠지만 어셈블러 안 써도 게임 개발 가능해서 독립적 개발 가능. 역할 분담도 좋다. 다른 사람이 모듈화해서 작성하면 좋을 것이다. 이 파일 규격, 이를 변환해주는 알고리즘 사람 두고 GUI 사람 편하게 하는 거 생각, 분업.